

대본

한국어 선생님이 된 이야기 :)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 선생님입니다

저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안 아프고 건강한 한 주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이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2주 정도 가까이 알레르기랑 감기가 같이 와서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요

코가 조금 막혀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늦게...

유튜브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약간 목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재 좀 아프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벌써 3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들 잘 보내고 있죠?

오늘은 선생님이 조금 편안하게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했던 알바 알바에 관한 비디오를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알바 말고도

그냥 일 일도 정말 많이 해봤어요

정말 많이? 그냥 꽤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다른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어떤 일들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한국어 선생님이 됐을까?

일이나 회사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팟캐스트 바로 시작해볼까요?

대본

한국어 선생님이 된 이야기 :)

일단 저는 어릴 때,
어릴 때는 큰 꿈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다른 언어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사실 저 고등학교 때는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국어, 한국어였어요
그리고 저는 수학과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가기 전에
약간 경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다른 언어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과를 스페인어과로 갔어요
저는 스페인어과로 갔고
그리고 부전공으로 경영학과도 공부했습니다
전 전공이 두 개예요
스페인어랑 경영학과 인데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은
바로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휴학을 하고
풀타임 약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일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제가 그때 수학을 가르치면서
나 가르치는 거 좋아하네? 이거 약간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대본

한국어 선생님이 된 이야기 :)

그리고 제가 전공이 경영학과였잖아요
그래서 인턴,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인턴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섬유 회사였어요
이렇게 옷 만드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행정일을 합니다
약간 로지스틱 관련된 일이었어요
한국이랑 중국에 있는 바이어들이랑 연락하고
이런 물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일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나의 첫 인턴 일이라서
배우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일을 해서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2개월, 3개월 동안은 약간 열심히 일을 배우고 일을 했는데
제가 한 4개월 때부터
일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약간 저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엑셀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일은 괜찮았는데
내가 여기 일을 하면서 나한테 크게 배우는 게 없는 것 같다는 느낌?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지?
이거 정말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인턴을 하고
저는 아주 아주 아주 슬퍼졌습니다

대본

한국어 선생님이 된 이야기 :)

제가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됐고
이제 졸업하고 직업을 찾고 일을 해야 하는데
다시 똑같이 경영일, 행정일 하면서
사무실에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3개월 동안
책만 엄청 읽으면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책을 계속 읽다가
나는 약간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정말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NGO 비영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남들을 도우면서 되게 의미있게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 비영리 단체 NGO 같은 아주 작은 스타트업에서
다시 인턴을 해요
다시 인턴을 하는데,
이 회사가 정말 정말 작았거든요
정말 작은 회사여서
제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대본

한국어 선생님이 된 이야기 :)

마케팅도 하고 만드는 거, 제가 다 만들고
디자인도 하고 프로젝트, 보고서 쓰기 정말 많은 걸 했었어요
일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 사무실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항상 일하고 있는 거 알지만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저는 성격이 너무 안 맞았어요
그때 저는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 인턴이 끝나고
똑같이 약간 비영리적인 일,
NGO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사무실에 앉아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바로 페루에 한국어 선생님이로 봉사를 갑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제가 페루에서 학생들한테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정말 너무 저랑 잘 맞는 거예요
아이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
가르치는 일도 너무너무 잘 맞고
스페인어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근데 페루 일이 끝나가면서
제가 또 다른 고민이 생겼거든요
저는 한국어 가르치는 일은 진짜 좋았는데
문제가 저는 한국에서 안 살고 싶었어요
저는 옛날에 진짜 이민이 가고 싶었거든요

대본

한국어 선생님이 된 이야기 :)

그래서 아 호주 이민을 가고 싶다
호주에 이민을 가겠다 라는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페루 봉사가 끝난 후에
저는 호주로 갑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사실 돈을 많이 많이 모아서
그 호주 대학원에 가서
이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그게 어렵더라구요
호주가 일단 정말 정말 비쌌어요
그리고 제가 호주에서 일을 2개, 3개를 같이 했는데
돈이 빨리 안 모이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도 카페에서도 일하고,
한국 식당에서도 일하고,
스시집에서도 일하고,
이자카야에서도 일하고,
또 제가 호주 학생이 있었어요
한국어 가르치는 일도 계속 했었고,
영어 가르치는 일도 했었습니다
호주에서 일을 많이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돈이 정말 잘 안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호주가 너무 비싸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있을 때
아 호주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르치는 일이 정말 좋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본

한국어 선생님이 된 이야기 :)

제가 대학교 때부터 수학 선생님이로도 일을 했고
계속 영어 선생님이랑
한국어 선생님이로 온라인 알바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 일을 정말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었고
제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유일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는 한국어 선생님이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학생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프레플레이라는 웹사이트에서 가르쳤는데
제 랭킹이 저기 뒤에 있었습시다
아주 뒤에 있어서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제가 옛날부터 가르치던 학생이 좀 있어서 계속 가르치고 있었는데
새로운 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고
한국어 선생님 하고 싶은데
학생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일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찾습니다
제가 비영리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봉사도 했었고 그래서 정부 기관에 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 회계 일을 했습시다
제 전공이 경영이다 보니까
행정이랑 이런 회계 일을 했었는데
와 진짜 너무 재미없어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대본

한국어 선생님이 된 이야기 :)

일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정말 하루에 일하는 시간 3시간? 4시간이었는데
저 매일매일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존경해요

저는 사무실에 서 있을 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저 수업도 서서 하거든요

가끔은 걸어요 걸으면서 수업도 하는데

저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아 나는 이 일을 너무 빨리 안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저는 그 행정일 마지막 일을 할 때

난 어떻게든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제가 웹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 웹사이트를 만든 게

제가 회사 다니면서 아 어떻게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회사에 가서도 내 일 끝내면

한국어 웹사이트 만드는 일 하고 글 쓰고

이렇게 하면서 회사를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아이토키라는 가르치는 웹사이트에 승인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웹사이트가 있으면

학생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 회사는 4개월 정도 다녔어요

대본

한국어 선생님이 된 이야기 :)

그리고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는 풀타임 한국어 선생님이 하고 싶은데
학생이 있을지 없을지 그때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 일할 수 있는
투어가이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외국인들한테 투어해주는 가이드도 한 2개월 정도 했었어요
2개월 정도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었고
학생들이 좀 많이 많이 생기면서
투어가이드 일도 그만두고
지금까지 쪽 완전 한국어 선생님이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 한국어 가르치는 일이 좋고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제가 다른 일들도 다 해보고
많은 알바도 해보고
인턴도 해보고
다른 나라에서도 일을 해봤으니까
이제 정말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아 나는 이렇게 일 못한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제 일을 제가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저처럼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주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하고 싶은 일 있다?
그러면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본

한국어 선생님이 된 이야기 :)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정말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유튜브 하는 것도 재밌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한국어 자료 콘텐츠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면은
제가 또 다른 것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됐는지
제가 해봤던 다른 일들,
저희 인생 생각들, 고민들을 조금 얘기해 드렸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처럼 아프지 말고 다들 건강 잘 챙기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들고 올게요,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